

교환학생 보고서

이름	한글	김가람	소속(학부/과)	전자공학부
파견 학기	4-1(2023년 가을학기)		파견 국가	리투아니아
파견 대학	vilnius tech			

❖ 경험보고서는 이후 파견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성실히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저는 입학 후 코로나로 인해 다양한 경험을 쌓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2023년 코로나 상황이 점차 안정되면서, 대학 생활을 더 다채롭게 만들어보고 싶은 욕구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졸업 전에 해보고 싶은 일들을 모두 경험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마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찾던 중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발견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부터 꿈꿔왔던 대학 생활의 일환으로서,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교환학생을 통한 반 년간의 긴 외국생활과 현지 대학생으로서 해외에 있는 것은 여행과는 다른 경험을 함께 가져다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는 대학생 때만 할 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 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1. 상대교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 준비는 상대교 측에서 메일로 어떻게 무엇을 신청해야하는지 알려줍니다. online application을 학부 코디네이터분께서 허가하시면 learning agreement를 작성할 수 있는데, 이거까지 마무리하면 입학허가서가 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상한 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바로 상대교측에 메일을 넣어 문의하면 빠르고 친절하게 답변해줍니다. 저의 경우에는 처음에 전자공학부 수업 2개, 교양 수업 3개를 신청해봤는데 교양수업이 전공보다 많아서 online application이 전자공학부의 코디네이터가 아닌 다른 학부로 들어가서 허가가 안돼서 기다리다가 뒤늦게 문의해서 해결하였습니다. 시차가 있기에 시간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 비자발급 절차는 2023년 7월을 시점으로 비자발급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의 방식과는 달라졌으니, 블로그나 다른 정보들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비자발급과 관련된 메일도 상대교 측에서 오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빌뉴스 도착해서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작성하고 인터뷰날짜 맞춰서 가면 됩니다. 이민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위의 과정을 한번에 진행할 수 있고 다른 후기들과 비교해봤을 때 이전 방법에 비해 인터뷰날짜도 빠르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크게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 영문 보험 증서 2. 잔고증명서 3. 왕복 비행티켓을 가져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잔고증명서는 가져가더라도 그 자리에서 은행 앱을 열어 잔고를 보여드려야했습니다. 그 때 기준으로 잔고가 충분하지 못하다면 비자발급이 거부될 수도 있으니 통장에 충분한 돈을 넣어두시길 바랍니다.

3. 항공권 구입

저는 2~3개월 전쯤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isic카드를 이용해 키세스항공을 통해 왕복 110만원정도로 구매했습니다. 키세스항공을 통해 예매한 비행편에는 2개의 23kg 위탁수하물을 포함하고 있어 수하물 추가 비용이 들지않습니다. 왕복 항공 편으로 결제한 후 귀국편의 경우 이후 약간의 수수료만 내고 변경할 수 있기에 이후 스케줄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수강신청 및 기숙사

수강신청은 우선 online application 과정에서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개강 후 한달정도 정정기간이 있기에 크게 부담가지지 않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빌뉴스테크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과목에 관한 pdf 파일이 나와있습니다. 이를 보고 대략적으로 어떤 과목을 들을지 정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강 인원 제한이나 수강인원이 적다고 폐강되는 일도 없고, 변경 과정도 크게 어렵지 않기에 OT를 들어 보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기숙사는 선착순 신청입니다. 관련 메일이 따로 오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1. 크기, 지리적 위치

빌뉴스 테크는 리투아니아 수도인 빌뉴스에 위치합니다. 캠퍼스의 크기 자체는 크지않습니다. 우선 본 캠퍼스는 빌뉴스 대학교 옆에 위치합니다. 본캠퍼스는 기숙사에서 걸어서 10분정도의 거리에 위치합니다. 4~5개의 건물로 구성되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캠퍼스 반대편(IKI 방면)으로 쪽가면 새로 생긴 캠퍼스가 하나 있습니다.(기숙사에서 걸어서 15분, 버스 한정거장 거리) 전자공학부 전공수업은 대부분 이 곳에서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전자공학부의 많은 수업들이 올드타운에 있는 건물에서 수업을 진행했다고 들었는데, 2023년 가을학기부터 새로 생긴 이 캠퍼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올드타운에 있는 건물에서도 몇몇 수업을 진행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올드타운에서 듣는 수업은 없었습니다.

2. 기후

저는 가을학기 파견이었기에 8월말에 빌뉴스에 갔습니다. 8월말~10월 중순까지는 일교차가 좀 있지만 날씨도 맑고 나쁘지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급격히 추워지고 눈이 많이 내리며 흐린 날들의 연속입니다. 11월말~12월쯤되면 눈이 엄청 자주내립니다. 계속 내리니까 그런건지 인도에는 제설작업을 하지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빙판길이 되어있고, 눈이 녹아서 질척질척한 곳이 꽤나 많습니다. 운동화가 정말 빠르게 더러워지고 미끄러지기 쉬우니 워커나 부츠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1월 중순정도부터는 흐린날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에 파란하늘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기온도 낮고 흐리기까지 해서 더 추운것 같습니다. 저는 추위를 많이 타서 위아래 내복을 꼭 입고 다녔습니다.

-주변환경

올드타운으로 가기위해서는 버스로 30~40분정도 가면됩니다. 멀다고 느끼실수 있지만 생각보다 멀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기숙사와 캠퍼스 근처에는 IKI마트하나와 식당 네 개 (피자, 케밥, 중식, 스시)가 있고 빌뉴스테크 캠퍼스에 카페 하나, 빌뉴스 캠퍼스에 카페 하나인가 두 개 있었던 것 같습니다. JAMMI(케밥집) 맛있으니까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signals and systems

신호와 시스템+ DSP 내용의 과목이었습니다.

매주 이론 수업이 있고 2주에 한번 실험수업이 있습니다. 이론은 중간, 기말 2번의 필기시험을 쳤고, 실험은 기말에 필기시험 한번, 보고서 5개 제출을 해야했습니다. 이 수업은 원래 1월에 기말고사를 치는 과목이라고 표시되어있었는데, 교환학생들이 크리스마스 때 본가를 갔다가 안돌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면서 종강 전에 기말을 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lithuania language1

교환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리투아니아어 수업입니다. 가을학기에는 1, 봄학기에는 2가 열리는데 1에서 기초를 배우고 이를 토대로 2는 조금 향상된 난이도로 진행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기초라서 그런지 알파벳, 단어, 동사, 형용사, 명사, 자기소개 등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았습니디. 학기 중에 3번의 시험을 치는데, 이 시험을 3번 다 만점을 받으면 기말시험을 치지않아도 됩니다. 이 수업은 기말을 일찍 치는 과목으로 종강 전에 기말을 쳤습니디.

-health and physicals

체육관에 20번만 가면 pass 주는 과목이었습니다. 학점이 필요하시다면 꼭 들으세요. 헬스말고도 농구, 코어 등 다양한 종목있어서 원하는걸 신청한 후 한 학기에 20번 이상 가면 pass입니다. 헬스장은 많이 작고 기구도 다양한 편은 아닙니다. (런닝머신도 없음) 그렇지만 이 외에 헬스장을 가려면 버스를 타고 나가야하기에 가볍게 운동하기엔 나쁘지않습니디.

-english language

이 과목은 english language라서 신청했는데 moodle이라고 강의지원시스템같은 홈페이지에는 academic english로 나와있었습니다. 지문을 분석하고 에세이 쓰는 목적, 양식, 단어 선정, 문법, 발표 등 관련 지식을 배우는 수업이었습니다. 수업 중 토론하는 시간도 많고 교수님이 질문도 많이 하시고 간단한 발표도 많은 과목입니다. 한 학기동안 과제는 3개, 중간,기말 시험 한번씩 치는 과목입니다. 과제는 10분정도의 발표하나, 두 개의 보고서 과제가 있었습니다. 교환학생들보단 풀타임 학생이 대부분인 수업이었습니다.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빌뉴스 테크에서 온 메일을 통해 신청해서 들어가는 기숙사는 Sauletekio 39A입니다.(선택지가 두 개였던 것같은데 슬레테키오가 캠퍼스 근처입니다). 빌뉴스 테크 교환학생들은 거의 다 Sauletekio 39a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뉴스 교환학생을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 sauletekio 39와는 다른 기숙사이니 참고 바랍니다. 보증금 300유로, 월세 200 혹은 240유로입니다. 저는 240유로 방에 살았는데 각 방에 화장실은 하나씩 있고, 두 방이 하나의 부엌을 공유합니다. 매주 한번씩 청소아주머니가 오셔서 바닥, 부엌, 화장실 청소를 해주십니다. 바로 옆 기숙사인 sauletekio 39, sauletekio 37보다는 시설이나 서비스가 괜찮지만 두 배~그 이상 비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생활비는 많이 들지않았던 것 같습니다. 빌뉴스에 있는 동안은 마트에서 재료를 사서 대부분 요리를 해서 먹었습니다. 마트가 한국에 비하면 엄청 싸기 때문에 생활비는 많이 들지않았습니다. 외식비는 한국 이랑 비슷했습니다.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개강 전 멘토에게 연락이 올 것입니다. 그 때 궁금한 점등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답변해주시니 생활 관련 질문은 멘토에게 물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멘토 말고도 국제 팀에 메일을 넣거나 사무실로 찾아가면 빠르게 답변해드립니다.

개강 후 일주일 OT 기간 동안 매일 밤 파티, 행사 등이 열립니다. 이 때 다른 교환학생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OT 주간 외에도 ESN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이나 문화행사들이 많습니다. 트라카이 투어, 국제 문화행사, 각 나라 별 요리 행사, 댄스 수업, 다양한 파티, 라플란드 트립, 발트해 트립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OT 이외에 다른 행사들에는 많이 참여한 편은 아니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문화행사의 경우에는 많이 참여하는 걸 추천합니다. 여행의 경우에는 단체로 가는 것임을 인지하시고, 여행 방식이 괜찮은지 잘 고려하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라플란드 트립의 경우 버스와 페리로만 빌뉴스에서 라플란드까지 이동합니다. 약 이틀간 이동을 하기에 꽤나 힘든 여정입니다. 따로 여행을 갔다면 비행편을 이용하거나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여행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몸이 조금 고생해도 괜찮다면 ESN에서 주관하는 라플란드 트립 추천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지고 이 시기가 아니면 언제 이틀을 버스를 타고 이동해보나 싶기도하고, 여행 계획을 따로 제가 세우지 않아도 돼서 저는 좋았습니다.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학교가 크지않아서 부대시설은 크게 추천할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헬스장이 모두 버스를 타고 가야 하기에 조금 귀찮다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한 학교 헬스장을 추천합니다. 매우 작지만 또 가볍게 운동하기엔 좋습니다. 학기 시작하고 홈페이지가 열리면 헬스신청을 하면 QR코드가 오는데 QR 코드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점을 신청하면 학점도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신청하는걸 추천합니다. 빌뉴스테크 옆에 빌뉴스대학교 도서관 시설이 매우 좋으니 필요하시다면 가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빌뉴스 테크 도서관은 시설이 좋은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동아리는 하지않아서 모르겠습니다.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교환학생을 가기 전에 영어회화공부를 충분히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어느정도 영어실력이 되어있어야 외국인 친구들과 다양한 주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감을 가지고 말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영어실력이나 발음 등을 부끄러워하지말고 틀리더라도 당당하게 이야기 하다보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을 것이고 점차 조금 더 나아질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간다면 모두가 친절하게 대해줄 것이니 먼저 다가가서 많은 친구를 사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유럽의 겨울에는 흐린 날이 많으니 8~10월에 날씨가 좋을 때 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걸 추천합니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경험 중에서 가장 큰 점은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상황에 직

면하여 해결해 나감으로써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걱정했던 것만큼 어렵거나 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영어 사용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영어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잘 못해도 이해해주고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졌습니다.

■ 기타(사진, 건의사항, 등)



